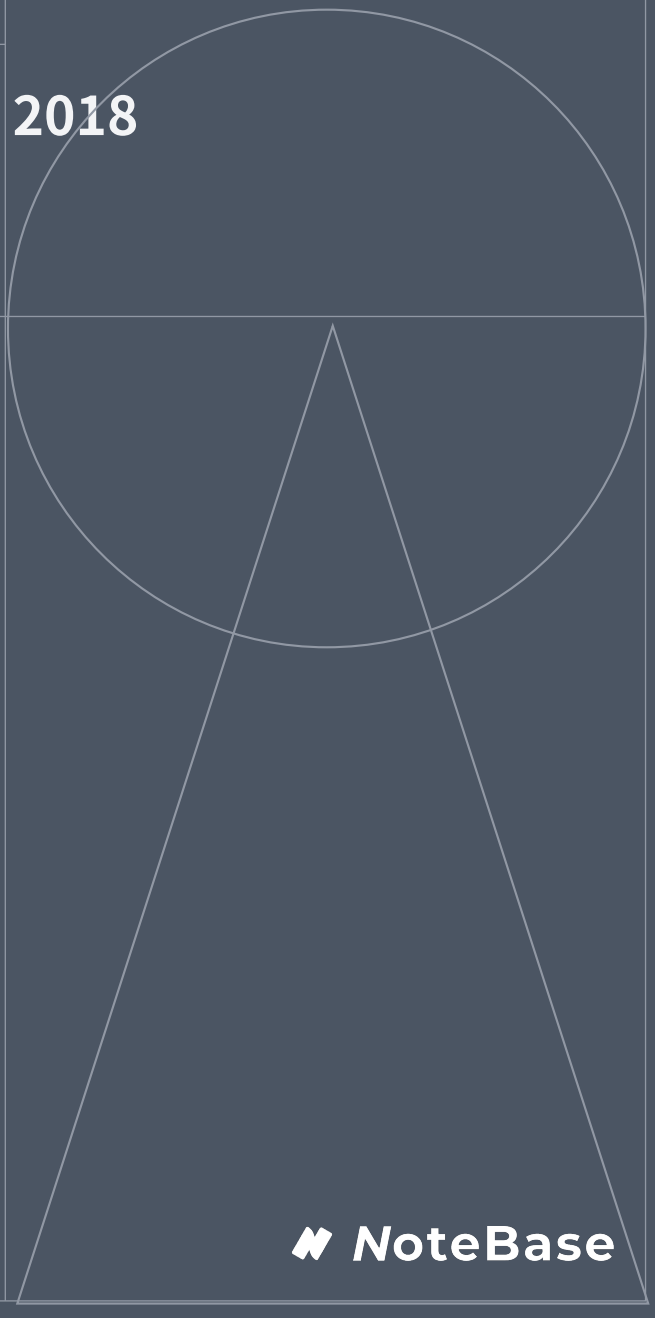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8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8

문 1.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 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① 이마를 짚어 보니 열이 있었다.
②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③ 그들은 속을 짚어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지도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것과 시험 문제를 골라 알려 주는 것은 모두 **여럿 가운데 특정 대상을 집어 가리키는** 행위이다. 손가락이 닿는다는 동작보다 문맥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짚다'의 의미가 결정된다.

선지별 해설

지문에서는 여행 계획을 설명하면서 지도에 표시된 특정 장소나 경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 '짚다'는 여러 대상 가운데 특정 대상을 골라 가리킨다는 뜻이다. 각 선지도 이 의미로 쓰였는지 비교한다.

① 이마를 짚다: 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마에 손을 가볍게 대어 누른다**는 뜻이다. 특정 대상을 골라 가리키는 지문의 쓰임과 달리, 이마에 손을 대어 상태를 살피는 동작을 나타낸다.

② 땅을 짚다: 두 손을 땅에 대어 **몸을 지탱한다**는 뜻이다. 손이 땅에 닿는 것은 몸을 받치기 위한 것이므로, 지도에서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행위와 구별된다.

③ 속을 짚어 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려 짐작한다**는 뜻이다. '속을 짚어 낼 수가 없다'는 그들의 생각이나 의도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상을 골라 가리킨다는 지문의 의미와 다르다.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다: 여러 문제 가운데 **특정 문제를 골라 알려 준다**는 뜻이다. 지도에서 특정 지점을 가리키듯이,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특정하여 가리킨다. 두 문장의 '짚다'는 같은 의미로 쓰였다.

NoteBase

문 2.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①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시켰다.
②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
③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④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아이를 입원시켰다'는 **아이가 입원하게 했다**는 뜻이다. 입원하는 사람은 아이이고, 문장의 주체는 아이가 입원하도록 하므로 사동 표현이 적절하다.

공통 해설

사동은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다. '-시키다'는 이러한 사동의 뜻을 더하므로, **주체가 직접 하는 일인지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일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주체가 직접 하는 일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하다'를 불필요하게 '-시키다'로 바꾸면 과도한 사동 표현이 된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다'에서 입원하는 사람은 아이이다. 여기에 다른 주체가 아이를 입원하게 한다는 뜻을 더하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다'가 된다. 따라서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는 **입원하는 아이와 입원하게 하는 주체가 구별되는** 사동 표현이다.

반면 나머지 문장에서는 주체가 직접 박 군을 소개하고, 타인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했다**',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로 고친다. '-시키다'라는 형태 자체가 언제나 잘못인 것은 아니지만, 이 문장들에서는 불필요한 사동의 뜻을 더한 것이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관리가 본디부터 간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간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대체로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간악하게 되며, 지위는 낮은데도 아는 것이 많으면 간악하게 되며,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또한 정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형벌에 원칙이 없고 염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악하게 된다. ……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대체로 이러하다.

①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는다.

②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③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감독자가 자주 교체된다.

④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 반면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필자가 제시한 것은 함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서로 죄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의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와 일치한다. 필자는 **적은 노력으로 빠르게 성과를 얻는 것**을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로 제시한다.

② X: 지문은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라고 한다. 이는 함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서로의 죄를 밝히지 않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함께 죄를 범하고도 서로의 죄를 밝히지 않는다'로 고쳐야 지문의 이유에 부합한다.

③ O: 지문의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간악하게 되며'와 일치한다. 필자가 문제 삼은 것은 **자신은 오래 머무는데 감독자는 자주 바뀌는 상황**이다.

④ O: 지문의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와 일치한다. 선지의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은 아래에 자신의 무리가 많은 상황을,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는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은 상황**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언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

①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다.
②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아오고 있다.
④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재가 배열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이 시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가 아니라 **시선의 이동**에 따라 자연의 모습을 제시한다. 먼 산과 절에서 청노루의 맑은 눈으로 초점이 좁혀지며, '봄눈 녹으면'은 계절적 배경을 나타낼 뿐 사건의 전개를 보여 주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청운사', '자하산', '청노루'가 어우러진 풍경은 현실의 자연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보다 **상상 속의 맑고 신비로운 자연**을 형상화한 것이다. 푸른빛을 떠올리게 하는 '청'과 자줏빛을 떠올리게 하는 '자하' 등의 시어도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다.

② O: 인적이 드문 산속의 절, 새로 돋는 속잎, 청노루의 맑은 눈은 세속의 소란에서 벗어난 깨끗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룬다. 이러한 자연을 아름답게 그려 냄으로써 **순수한 이상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③ O: 처음에는 '머언 산'과 '청운사'라는 넓고 먼 풍경을 보여 주고, 이어 느릅나무 속잎과 청노루를 거쳐 '맑은 눈'으로 초점을 좁힌다. 마지막의 구름도 청노루의 눈에 비친 모습이므로, 시적 공간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아온다.

④ X: 산과 절, 느릅나무, 청노루, 구름은 앞선 사건 뒤에 다음 사건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봄눈 녹으면'은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속잎 피어나는'도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다. 제재의 배열 기준은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먼 풍경에서 가까운 대상으로 향하는 시선의 이동**이다.

NoteBase

문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 꿰미)이다. …… 처음 황제(黃帝) 때에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 관상을 보는 사람 [相工]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다. "산야(山野)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 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만물을 조화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 왕자(王者)는 사람을 그릇[器]으로 만듭니다. 원컨대 ㉣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銅]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① ㉠은 ㉣의 결정에 의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② ㉡은 ㉠의 단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③ ㉢은 ㉡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다.

④ ㉣은 ㉢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 '왕자'는 **인재를 길러 쓰는 이상적인 군주**를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관상가를 불러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 인물은 ㉢이 아니라 ㉣ **'폐하'인 황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폐하'는 앞서 관상가를 부른 황제를 가리킨다. 관상가는 공방을 버리지 말고 자질을 갈고닦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어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고 서술된다. 이는 황제가 **관상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방을 쓰기로 한 결정**이 공방의 이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② O: ㉡ 관상가는 공방이 '산야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 만하지 못하오나'라고 하여 현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황제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서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단점보다 **다듬으면 자질을 발휘할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③ X: ㉢ '왕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드는 이상적인 군주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며, 이 장면에서 관상가를 부른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다. 관상가가 공방을 살피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게 된 것은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보이니'라는 행동 때문이다. 따라서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한 주체는 ㉢ **'왕자'가 아니라** ㉣ **'폐하'인 황제**로 고쳐야 한다.

④ O: '왕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는 군주가 사람의 자질을 길러 쓸모 있는 인재로 만든다는 뜻이다. ㉣ '폐하'는 관상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방이 자질을 드러내고 이름을 알리게 한다. 이는 부족한 인물을 내버리지 않고 **자질을 길러 쓰는 군주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는 행동이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겨나지 않는 반면 일부의 경우에는 생겨난다. 그리고 그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은 기억 능력이 없는 것들보다 분별력과 학습력이 더 뛰어난데, 그중 소리를 듣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분별은 하지만 배움을 얻지는 못하고, 기억에 덧붙여 청각 능력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는다.
(나) 앞에서 말했듯이,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기술자는 유경험자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이론적인 지식들은 실천적인 것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임이 분명하다.
(다)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가의 삶을 위해서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인식은 유용한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모든 발견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 여가의 즐거움이나 필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학문들이 발견되었으니, 그 일은 사람들이 여가를 누렸던 여러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집트 지역에서 수학적인 기술들이 맨 처음 자리 잡았으니, 그곳에서는 제사장(祭司長) 가문이 여가의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라)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까닭은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억은 하나의 경험 능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은 학문적인 인식이나 기술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학문적인 인식과 기술은 경험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 까닭은 폴로스가 말하듯 경험은 기술을 만들어 내지만, 무경험은 우연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긴다.

① (가) - (다) - (나)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가) - (라) - (나) - (다)
④ (가) - (라) - (다) - (나)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라)는 (가)의 기억 논의를 이어 **기억에서 경험과 기술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다)는 그 기술을 종류와 목적에 따라 나누어 학문의 발생으로 논의를 넓힌다. (나)의 '앞에서 말했듯이'는 앞선 인식 단계들을 되짚으며 지혜의 의미를 정리하는 표현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가) → (라) → (다) → (나)

(가): 생명체가 감각을 지니고 태어나며, 일부는 감각으로부터 기억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감각과 기억이라는 기초적인 인식 능력을 제시하므로, 인간의 경험과 기술을 설명하는 내용보다 앞에 놓인다.

(라): (가)에서 제시한 기억을 받아,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억이 하나의 경험**을 이루고 그 경험에서 기술과 학문적인 인식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특히 여러 관념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길 때 기술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다음에 기술의 종류와 발견 목적을 논할 바탕이 된다.

(다):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라고 하며 (라)의 기술 논의를 이어받는다. 기술을 필요를 위한 것과 여가의 삶을 위한 것으로 나누고, 이어 **여가의 즐거움이나 필요에 매이지 않는 학문**의 발생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이집트의 수학적 기술에 관한 사례는 여가가 학문 발생의 조건이 되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

(나): **'앞에서 말했듯이'**로 앞선 논의를 되짚으며 감각을 지닌 사람, 유경험자, 기술자 사이의 지혜 수준을 비교한다. 이어 이론적인 지식이 실천적인 지식보다 더 지혜롭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그러므로'를 통해 지혜가 원리와 원인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이라는 결론을 내리므로 글의 마지막에 놓인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되새김 동물인 무스(moose)의 경우,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무스의 위는 네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에서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남서부의 사막 지대에 사는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위로 눈만 빼꼼 내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있으면 따뜻한 모래가 도마뱀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 곤충이 지나가면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이다. 반대로 갈퀴발도마뱀의 포식자인 뱀이 다가오면, 그 도마뱀은 사냥할 기운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경험을 되살려 호흡과 심장 박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죽은 시늉을 한다.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의 손실을 줄이고 사막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① 무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② 무스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③ 갈퀴발도마뱀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

④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무스가 소화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설명은 있지만, 소화를 잘 시키려고 **식물을 가려 먹는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먹이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먹이를 고르는 습성까지 알 수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무스는 나뭇잎, 풀줄기, 잡초처럼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기 위해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먹은 것을 잘 소화하는 일이 생존에 필요하므로, 움직이지 않는 행동을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X: 글은 무스가 먹는 식물의 예와 그 먹이를 소화하려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설명한다. 그러나 **소화를 위해 식물을 가려 먹는 습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스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먹이를 가려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먹은 뒤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O: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위로 눈만 내놓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따뜻한 모래로부터 기운을 얻는다. 이렇게 **사냥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곤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므로, 움직이지 않는 행동이 먹이를 구하는 데 기여한다. 곤충을 실제로 잡아먹을 때에는 모래에서 나가므로, 사냥의 모든 과정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아 **수분 손실과 포식자의 위협을 줄인다**. 이는 사막에서 수분을 보존하고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힐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NoteBase

문 8.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문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비 오고 부엌에 불을 때면 천장은 굴뚝이요 흙 떨어진 윗대궁기 바람은 살 쏜 듯이 들이불고 틀만 남은 헌 문짝 멍석으로 창과 문을 막고 방에 반듯 드러누워 가만히 바라보면 천장은 하늘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요, 이십팔수(二十八宿)를 세어본다.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제,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르는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에 잣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나) 한 달에 아홉 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누공(顔瓢屢空)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봄날이 길고 길어 소쩍새가 재촉커늘
동쪽 집에 따비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어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팥은 서너 되 붙었거늘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윗대궁기: 나뭇가지 등으로 엮어 흙을 바른 벽에 생긴 구멍
안표누공(顔瓢屢空): 공자(孔子)의 제자 안회(⌧回)의 표주박이 자주 빔
원헌(原憲): 공자의 제자

①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이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다.
④ (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나)는 '한 달에 / 아홉 끼를 / 얻거나 / 못 얻거나'처럼 한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 **4음보의 규칙적인 리듬**이 나타난다. (가)는 사건과 대화를 산문으로 풀어내므로 이와 같은 정형적인 리듬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나)는 '한 달에 / 아홉 끼를 / 얻거나 /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 갓 하나를 / 쓰거나 / 못 쓰거나'처럼 한 행이 대체로 **네 마디로 나뉘는 4음보**를 이룬다. 비슷한 문장 구조와 어미도 반복되어 규칙적인 리듬을 만든다. (가)는 집의 형편과 자식들의 말을 산문으로 이어 서술하여 (나)와 같은 정형적인 리듬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X: (가)는 문밖에 가랑비가 오는데 방 안에는 큰비가 온다고 하고, 구멍 난 천장을 별자리를 그려 놓은 그림에 빗댄다. 이는 허름한 집의 모습을 **과장과 익살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두 글 모두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X: (가)의 '곤란이 더욱 심할 제'와 (나)의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에는 가난한 처지에 대한 괴로움과 걱정이 드러난다. 특히 (나)는 이웃에게 농기구를 빌리고 씨앗을 마련하여 **생계를 꾸리려는 행동**을 보인다. 두 글 모두 현재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④ X: (가)의 익살스러운 표현은 가난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방식이지, 그 처지를 긍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이치는 집과 음식을 조르는 자식들의 모습은 생활의 곤란을 보여 준다. (나)도 굶주림과 부족한 씨앗을 이야기하며 식구들의 생계를 걱정하므로, 두 글 모두 **가난한 현실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9.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옷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① 鄕閭有禮
② 相扶相助
③ 兄友弟恭
④ 子弟有學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마을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실천하라고 권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겉모습만 사람일 뿐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꾸짖는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마을 공동체에서 예의와 도덕을 지키는 삶**이다.

핵심 풀이

시조의 핵심 내용: 첫 행의 '마을 사람들아'는 권고의 대상이 마을 공동체임을, '옳은 일 하자스라'는 권고의 내용이 올바른 행동의 실천임을 보여 준다. 뒤에서는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갓과 고깔을 쓴 마소에 빗대어, **사람다운 삶은 겉모습이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鄕閭有禮(향려유례): '鄕閭'는 마을을, '有禮'는 예의가 있음을 뜻한다. 곧 **마을에 예의와 도덕이 지켜짐**을 나타내므로, 마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권하는 시조의 내용에 부합한다.

相扶相助(상부상조): 서로 부축하고 돕는다는 뜻이다. 시조가 강조하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보다 올바른 행동의 실천**이므로, 상호 협력을 중심 내용으로 삼기는 어렵다.

兄友弟恭(형우제공):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는 뜻이다. **형제 사이의 우애와 공경**을 나타내지만, 시조는 형제 관계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의 도덕적 삶을 다룬다.

子弟有學(자제유학): 자제들에게 배움이 있다는 뜻이다. **자제의 학문과 배움**에 관한 표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권하는 시조의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NoteBase

문 10. ㉠, ㉡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근무 여건이 개선(㉠)되자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다.
◯ 금융 당국은 새로운 통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① ㉠: 改善, ㉡: 通貨
② ㉠: 改選, ㉡: 通話
③ ㉠: 改善, ㉡: 通話
④ ㉠: 改選, ㉡: 通貨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근무 여건을 더 좋게 바꾼다는 뜻의 '개선'은 **改善**으로 쓴다. 금융 정책에서 말하는 '통화'는 유통되는 화폐를 뜻하므로 **通貨**로 쓴다.

빈칸별 해설

㉠ 改善: '고칠 개(改)'와 '착할 선(善)'이 결합하여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을 고쳐 더 좋게 한다는 뜻이다. 근무 여건이 좋아져 업무 효율이 올랐다는 문맥이므로 **改善**이 알맞다. '改選'의 '選'은 '가릴 선'으로, 사람을 새로 뽑는다는 뜻이므로 근무 여건의 변화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 通貨: '통할 통(通)'과 '재화 화(貨)'가 결합한 말로, 유통되는 화폐를 뜻한다. 금융 당국이 제안한 정책의 대상은 화폐이므로 **通貨**가 알맞다. '通話'의 '話'는 '말씀 화'로, 전화로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므로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의 改善과 ㉡의 通貨를 연결한 조합은 ①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① 영희: 줄 서기의 경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더 높아.

② 철수: 특히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경우, 동조 압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③ 갑순: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갑돌: 아침에 수많은 정류장 중 어디에서 공항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는데 스튜어디스 차림의 여성이 향하는 정류장 쪽으로 따라갔었어. 이 경우, 그 스튜어디스 복장이 신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글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동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의 신념이 집단의 결속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갑순의 해석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둘째 문단에서는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을 때**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뒤에 온 사람도 그 줄에 서기 쉽다는 영희의 말은 이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② O: 응집력이 강하다는 것은 집단의 결속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글에서는 결속력이 강할 때 동조 현상이 강해지며,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동조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맞서기 어렵다는 철수의 말은 **집단의 압력에 따른 동조**를 이해한 것이다.

③ X: 첫째 문단에서는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동조할 수 있다**고 했고, 둘째 문단에서는 집단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동조 현상이 강해진다고 했다. 따라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 동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비교는 글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개인의 신념과 다른 행동도 집단의 압력 때문에 나타날 수 있으며, 집단의 결속력 역시 동조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④ O: 갑돌은 공항버스 정류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 스튜어디스 복장은 그 여성이 공항과 관련된 정보를 잘 알 것이라고 믿게 하는 단서가 된다. 이는 글에서 설명한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 동조가 강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사: 동아리 보고서를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학생1: 네, 선생님. 다정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교사: 이거, 큰일이네. 오늘이 마감인데.
학생1: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학생2: 어떡해?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
학생1: 아니, 뭐라고? 다정이가 보고서 작성하기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거잖아.
교사: 자, 그만들 해. 이럴 때가 아니잖아. 어서 빨리 다정이한테 연락이나 해 봐.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니야.
학생3: 제가 다정이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해 볼게요.

① 교사가 권위적인 태도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② 학생1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③ 학생2가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어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④ 학생3이 본질과 관계없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학생2는 보고서 제출이 급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보다 학생1에게 **회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한다. 이 말에 학생1이 반발하면서 대화가 문제 해결에서 책임 공방으로 바뀌어 갈등이 생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교사는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니야'라고 하며 다정이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이는 권위를 내세워 상황을 덮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 공방을 멈추고 **보고서 제출을 위한 해결 행동**에 집중하도록 중재하는 태도이다.

② X: 학생1은 처음에 보고서를 다정이가 가지고 있으며 아직 오지 않았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교사의 우려에도 응답한다. 이후 보고서 작성이 지난 회의에서 다정이의 몫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학생2의 책임 추궁에 대한 반박**이다. 처음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의사소통을 끊었다고 볼 수 없다.

③ O: 교사와 학생1은 마감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다정이가 오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2가 끼어들어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말하면서, 시급한 제출 문제보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앞세운다. 학생1이 '아니, 뭐라고?'라며 반발하고 다정이의 담당 업무였음을 주장하므로, 학생2의 발언이 책임 공방과 갈등을 일으킨 계기임을 알 수 있다.

④ X: 학생3은 다정이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므로 직접 연락해 보겠다고 한다. 다정이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락은 제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행동이다. 따라서 본질과 무관한 말로 상황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하려는** 태도이다.

NoteBase

문 13. 화자의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상 대화에서는 직접 발화보다는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①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릴 때) 돈 가진 것 좀 있니?

② (창문을 열고 싶을 때) 얘야, 방이 너무 더운 것 같구나.

③ (갈림길에서 방향을 물을 때)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④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는 길의 방향을 묻는 표현 그대로 **방향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직접 발화**이다. 말의 겉뜻과 실제 의도가 일치하므로 숨은 의도를 맥락에서 추론할 필요가 없다.

공통 해설

직접 발화는 **문장에 드러난 뜻과 화자의 실제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이다. 간접 발화는 겉으로 표현한 뜻을 통해 다른 의도를 전달하므로, 대화 상황이나 화자와 청자의 관계 등 맥락을 바탕으로 의도를 추론해야 한다.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는 의문문으로 길의 방향을 묻고, 실제로도 그 방향을 알고자 한다. 질문의 내용이 곧 화자의 의도이므로, 별도의 숨은 요청을 맥락에서 찾아낼 필요가 없다.

반면 '돈 가진 것 좀 있니?'는 겉으로는 돈의 소지 여부를 묻지만, 돈을 빌리려는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전달한다.

'방이 너무 더운 것 같구나.'는 방의 상태를 말하는 형식으로 창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한다.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는 학생들을 칭찬하는 형식으로 제시한 과제를 잘 수행하라고 독려한다. 이 발화들은 모두 괄호에 주어진 상황을 고려해야 겉뜻 너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NoteBase

문 14.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졸지에 부도를 맞았다니 참 안됐어. 그렇게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

②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지금 네가 본 것은 실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③ 저 집은 부부 간에 금실이 좋아.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얼마간을 보태 주셨어.

④ 저 사람은 아무래도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지난번 해일이 밀어닥칠 때 집채만 한 파도가 해변을 덮쳤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부부 간'은 **'부부간'**으로 붙여 써야 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안됐어'는 부도를 맞은 사정이 가엾고 딱하다는 뜻의 형용사 '안되다'가 활용한 말이므로 붙여 쓴다. 반면 '처리하면 안 돼'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부정 부사 '안'과 '되다'**가 결합한 구성이므로 띄어 쓴다.

② O: '아무것도'는 대명사 '아무것'에 조사 '도'가 붙은 말이므로 모두 붙여 쓴다. '못 미쳐'는 실상의 절반이라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으로, **부정 부사 '못'과 동사 '미치다'**를 띄어 쓴다.

③ X: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부부간'은 한 단어인 명사이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부부간에'**로 고쳐야 한다. '얼마간'도 그리 많지 않은 수량이나 정도를 뜻하는 한 단어이므로, 돈의 일부를 보태 주었다는 문맥에서 '얼마간을'로 붙여 쓴 것은 적절하다.

④ O: '믿을 만한'의 '만하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집채만 한'에서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만'**을 '집채'에 붙이고, 뒤의 '한'은 띄어 쓴다. 집채 정도로 큰 파도라는 뜻이다.

NoteBase

문 15.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철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 ‘열다’는 타동사이므로 ‘강제로’와 ‘열려고’ 사이에 목적어 ‘문을’을 보충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지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

③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앞의 명사구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로 고쳐 절과 절의 접속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을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 ‘하되’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어미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하며’로 고쳐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하되'는 미터법 사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예외적인 경우의 처리 방식을 덧붙이는** 데 적절하다.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환산 수치를 함께 적도록 한 내용이므로, '하며'로 고칠 필요가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대다'는 '문에 기대다'처럼 쓰지만, 타동사 '열다'에는 여는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앞의 '문에'는 '기대다'에 연결되는 부사어이므로 '열다'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다.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로 고치면 서술어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갖추어진다.

② O: 공급하려는 생활용수 자체가 급증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뜻이다.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고치면 급증하는 대상과 사업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③ O: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과'로 연결하면 둘 다 '마련하여'에 걸린다.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다'와 달리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다'는 의미상 호응하지 않는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로 고치면 '원인을 파악하다'와 '대책을 마련하다'가 각각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④ X: '하되'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산 수치를 함께 적으라는 내용을 덧붙인다. 앞의 원칙과 뒤의 예외적인 경우의 처리 방식을 연결하므로 **'하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단순히 내용을 나열하는 '하며'로 바꾸어야 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16.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나)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라)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① (가): 미닫이, 졸음, 익히
② (나): 마개, 마감, 지붕
③ (다): 육손이, 집집이, 곰배팔이
④ (라): 끄트머리, 바가지, 이파리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지붕'은 **명사 '집'**을 바탕으로 한 말이므로, 용언의 어간을 다루는 (나)의 예가 아니다.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은 경우를 다루는 **(라)의 예**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미닫이'는 어간 '미닫-'에 '-이'가, '졸음'은 어간 '졸-'에 '-음'이 붙어 명사가 된 말이다. '익히'는 어간 '익-'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말이다. 세 단어 모두 **어간의 원형을 살려 적은** 것으로, (가)의 제19항에 해당한다.

② X: '마개'와 '마감'은 동사 '막다'의 어간 '막-'에 각각 '-애', '-암'이 붙어 명사가 된 말이다. '-이'나 '-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었으므로, '막애', '막암'처럼 어간을 드러내지 않고 '마개', '마감'으로 적는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붕'은 역사적으로 **명사 '집'에 '-웅'**이 결합한 것으로 설명되는 말이다. 어간이 아니라 명사를 바탕으로 하므로 (나)가 아닌 **(라)의 제20항 [붙임]**에 해당한다.

③ O: '육손이'는 '육손'에, '집집이'는 '집집'에, '곰배팔이'는 '곰배팔'에 접미사 '-이'가 붙은 말이다. '육손이'와 '곰배팔이'는 명사이고 '집집이'는 부사이지만, 모두 **명사 뒤에 '-이'가 붙었다**는 점이 같다. 바탕이 된 명사의 원형을 살려 적으므로 (다)의 제20항에 해당한다.

④ O: '끄트머리', '바가지', '이파리'는 각각 명사 '끝', '박', '잎'을 바탕으로 하며,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이다. 이 경우에는 **명사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으므로, '끝', '박', '잎'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은 세 단어는 (라)의 제20항 [붙임]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 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ㅋ	ㅣ ㅡ	ㅏ ㅑ
ㄷ ㅌ	ㄴ ㄹ	ㅓ ㅕ
ㅁ ㅅ	ㅂ ㅍ	ㅗ ㅛ
ㅈ ㅊ	ㅇ ㅎ	ㅜ ㅠ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ㅅ'은 'ㅈㅊ'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② 'ㅁㅅ' 칸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다.

③ 'ㄷㅌ'과 'ㄴㄹ' 칸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다.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ㅇ'과 'ㆁ'은 구별되었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이 중에서 'ㆁ'은 'ㄱㅋ'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ㅁㅅ'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다른** 소리를 한 칸에 배치한 것이다. 'ㅁ'은 순음이자 비음이고, 'ㅅ'은 치음이자 마찰음이므로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었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훈민정음의 분류에서 'ㅅ·ㅈ·ㅊ'은 모두 잇소리인 **치음**이다. 또한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해 'ㅈ'을, 다시 획을 더해 'ㅊ'을 만들었으므로, 같은 계열인 'ㅅ'을 자판의 'ㅈㅊ'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② X: 훈민정음에서 'ㅁ'은 입술소리인 순음이고, 'ㅅ'은 잇소리인 치음이므로 조음 위치가 다르다. 조음 방식도 'ㅁ'은 공기가 코로 나가는 비음이고, 'ㅅ'은 좁은 틈으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음이다. 따라서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함께 배치한 것'**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제자 원리상 'ㄴ'에 획을 더해 'ㄷ'을, 'ㄷ'에 다시 획을 더해 'ㅌ'을 만들었으며, 'ㄹ'은 혀의 모양을 본뜨되 형태를 달리한 반설음의 이체자이다. 그러나 자판에서는 가획 관계인 'ㄴ·ㄷ·ㅌ'을 한 칸에 모으지 않고 'ㄷㅌ'과 'ㄴㄹ'로 나누었다. 'ㄷ·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 터뜨리는 파열음끼리, 'ㄴ·ㄹ'은 성대가 울리는 울림소리끼리 묶었으므로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한 배치이다.

④ O: 훈민정음에서 'ㅇ'은 목구멍소리인 후음이고, 'ㆁ'은 어금닛소리인 아음이어서 서로 구별된다. 'ㆁ'은 오늘날 받침 'ㅇ'의 소리에 해당하며, **'ㄱ·ㅋ'과 같은 아음**에 속하므로 자판의 'ㄱㅋ'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꿈이 아니었던가 하며 소스라쳐 깨어 눈을 떠보니 머리맡 창에 볕이 쨍쨍히 비친 것이 어느덧 저녁때가 된 것 같다. 벌써 새로 세시가 넘었다. 아침 먹고 나오는 길로 따뜻한 데 누웠으려니까 잠이 폭폭 왔던 것이다. 어쨌든 머리를 쳐드니, 인제는 거뜬하고 몸도 풀린 것 같다.

"네 처두 묵으라고 하였다만 모레는 너두 들를 테냐? 들르면 무얼 하느냐마는……."

조부의 못마땅해하는,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궂이 비꼬는 강강한 어투가 또 들린다.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수달피 깃을 댄 검정 외투를 입은 홀쭉한 뒷모양이 뜰을 격하여 툇마루 앞에 보이고 조부는 창을 열고 내다보고 앉았다. 덕기는 일어서려다가 조부가 문을 닫은 뒤에 나가리라 하고 주저앉았다.

"저야 오지요마는 덕기는 붙드실 게 무엇 있습니까. 공부하는 애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날짜를 대서 하루바삐 보내야지요……."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부친은 가냘프고 신경질적인 체격 보아서는 목소리라든지 느리게 하는 어조가 퍽 딴판인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②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조부의 목소리와 부친의 모습은 **덕기가 듣고 바라보는 대로** 제시된다. 서술자는 덕기가 잠에서 깨어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서술자는 덕기를 '덕기는'이라고 부르며 이야기 밖에서 서술하지만, 장면은 **덕기의 지각과 생각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꿈이 아니었던가'에는 잠에서 깬 덕기의 생각이, '부친이 왔나 보다'에는 목소리를 듣고 한 추측이 드러난다. 이어 유리 구멍으로 내다보는 덕기의 시선을 따라 부친의 뒷모양과 조부의 모습이 묘사된다.

② X: '수달피 깃을 댄 검정 외투'는 부친의 옷차림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이다. 이 글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부각하는 어휘를 반복하거나 그 어휘를 주제 의식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식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중심적인 서술 방식은 **덕기의 감각과 인식을 통해 가족의 모습과 대화를 전달하는 것**이다.

③ X: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이야기의 흐름에 개입하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평가·의견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다. '조부의 못마땅해하는', '짓궂이 비꼬는' 등의 표현은 **덕기가 듣는 조부의 어투와 그에 대한 인상**을 나타낸다. 이를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직접 밝히는 논평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X: 덕기는 방 안에서 유리 구멍으로 바깥을 보고, 부친은 뜰을 사이에 두고 툇마루 앞에 있으며, 조부는 창을 열고 앉아 있다. 이러한 공간 배치는 덕기가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는 위치를 보여 준다. 공간마다 서술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서술자가 덕기의 시선을 중심으로** 상황을 전달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조건을 모두 참조하여 쓴 글은?

◯ 대구(對句)의 기법을 사용할 것
◯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할 것

① 낙엽: 낙엽은 항상 패배한다.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계절의 객석에 슬픔과 추위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패배가 없더라면, 어떻게 봄의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② 비: 프랑스어로 '비가 내린다'는 한 단어라고 한다. 내리는 것은 비의 숙명인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뛴다. 자연은 모두 한 단어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닮는다면 어떨까.

③ 하늘: 하늘은 언젠가 자기 얼굴이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신을 비춰줄 만큼 큰 거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소녀를 발견했다. 포근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동자를 하늘은 바라보았다. 거기에 자신이 있었다.

④ 새: 높이 나는 새는 낮게 나는 새를 놀려 댔다. "어째서 그대는 멀리 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가? 기껏 날개가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러자 낮게 나는 새가 대답했다.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와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지은 **대구**이다. 두 새의 대화는 서로 다른 능력과 삶의 방식에 각자의 가치가 있음을 **우의적으로**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대구는 비슷한 짜임의 구절이나 문장을 짝지어 리듬과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법이다. 우의는 다른 사물이나 이야기에 빗대어 인간의 삶에 관한 뜻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방식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X: 낙엽이 지는 것을 '패배', 봄이 오는 것을 '승리'에 빗대어 실패가 새로운 성취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을 드러낸다. 그러나 **패배와 승리의 의미상 대조만으로 대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지은 표현이 없어 대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X: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뛴다'는 '주어 + 부사어 + 서술어'의 짜임을 나란히 놓은 대구이다. 그러나 자연의 모습을 나열한 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닮는다면 어떨까'라고 **삶에 대한 생각을 직접 제안**한다. 다른 사물의 이야기 속에 인간 삶의 의미를 담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우의적 표현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③ X: 하늘이 소녀의 눈동자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이야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짜임의 구절을 짝지은 대구가 없다**. 하늘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화만으로 대구 조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④ O: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와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는 비슷한 문장 짜임으로 두 대상을 나란히 제시한 대구이다. '높은 곳/낮은 곳', '구름/산', '멀리를 바라봄/세심히 보듬음'을 짝지어 각자의 특성을 드러낸다.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능력만 내세우는 새에게 낮게 나는 새가 가까운 것을 세심히 돌보는 가치도 일깨워 준다. 이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능력과 삶의 방식에는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통찰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므로 우의 조건도 충족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인 까닭이다. 어쩌면 사적 생산과 소비 형태 탓에 사생활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태동 때부터 소설의 중심 주제였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사적 경험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탐색해야 할 필요 탓에 소설이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 사적 공간은 개인,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은밀한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되도록 도왔다.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고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전의 지배적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 또한 낭독을 이상으로 삼지도 않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다. 소설 장르는 여럿이 함께 모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청중 개념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는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와는 달리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가치를 나누는 일이 점차 불가능해졌다. 혼자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사적 생활에 상당한 의미를 두게 되었음을 뜻한다. ……

이러한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것이 사적인 글쓰기였다.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 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을 쓸 때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그러나 글쓰기, 그중에도 특히 인쇄에 의해 복제된 글쓰기는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와 결국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율적 담론을 창조하게 되었다.

①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요구하였다.

③ 소설은 사적 공간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기에 출현하였다.

④ 희곡작가는 낭독을 통해 청중들과 교류하며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자 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사적인 글쓰기에서는 작가가 독자에게서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없다**. 글이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와 자율적인 담론이 된다는 설명도 있으므로,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마지막 문단에서 사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는 이야기꾼·음유 시인·극작가와 달리 청중의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인쇄된 글은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와 자율적인 담론이 된다. 따라서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표현은 '독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첫 문단에서 자기만의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이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고 했다. 이는 내적인 것의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요구했다는 진술의 근거이다.

③ O: 첫 문단은 소설의 출현을 사적 생활 개념의 출현과 연결하고, 소설을 읽고 쓰는 데 사적 생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문단에서는 혼자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는 일을,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에 대응한 사적인 글쓰기를 제시한다. 따라서 소설은 **사적 공간에서 읽고 쓰는 생활**과 함께 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O: 둘째 문단은 희곡을 소설 이전의 문학 형태로 들면서, 소설과 달리 낭독과 청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전 사회에서는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극작가는 사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와 달리 청중의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 존재로 제시된다. 이를 종합하면 희곡작가는 **낭독을 통해 청중과 교류하며 공통의 가치를 나누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NoteBase